

“주민·관광객 열린 문화공간”...곡성 뚝방마켓 개장

오는 14일 곡성천 제방길 일원 41개팀 공예품·농산물 등 선봬 버스킹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도



곡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말 문화장터인 '뚝방마켓'이 오는 14일 문을 열고 주민 맞이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뚝방마켓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모습. <곡성군 제공>

곡성군의 대표적인 주말 문화 장터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마중물 역할을 하는 '뚝방마켓'이 오는 14일 올해 첫 문을 열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선다.

10일 곡성군에 따르면 뚝방마켓은 곡성역과 섬진강기차마을 후문과 곡성읍 도심 사이를 가로지르는 곡성천 제방길 일원의 유희 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된 야외 시장이다.

뚝방마켓은 오는 14일 개장일을 시작으로 21일과 28일 등 총 3회에 걸쳐 장이 선다.

이후 오는 11월까지 우천 등 기상 악화 시기를 지상설 운영 체제를 갖춘다. 올해 첫 개장 행사에는 총 41개 팀이 참여해 다

채로운 상품을 선보인다. 각 판매 부스에서는 지역민들이 정성껏 제작한 도자기와 생활 액세서리 등 수공예품을 비롯해 수제 디저트, 신선한 지역 농산물, 특색 있는 먹거리 등이 판매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장터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순한 물건 매매를 넘어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참여형 복합 공간으로 운영되는 점도 뚝방마켓의 핵심 경쟁력이다.

장터가 열리는 동안 곳곳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청년층의 발길을 이끌 전망이다. 여기에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공예 마켓, 포토존이 마련되며, 친변을 찾는 산책객과 자전거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야외 쉼터도 함께 가동된다.

군은 뚝방마켓이 섬진강기차마을 등 인근 주

요 관광지를 찾는 외지 방문객들의 자연스러운 발걸음을 유도해, 지역 내 체류 시간을 늘리는 핵심 관광 콘텐츠로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농가와 청년 창업자들이 판매자로 직접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효과도 내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뚝방마켓은 이제 단순한 시장을 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한데 어울려 소통하는 곡성의 대표적인 열린 문화 공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뚝방마켓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화순군, 하니움 체육관 상시 개방 '활성화'

생활체육 저변 확대...사전 예약必

농구·피클볼 장비 등 무상 대여도

화순군이 하니움 실내체육관의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피클볼 장비 무상 대여 등 이용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 등 유희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하니움 실내체육관을 농구와 피클볼 종목 중심으로 지역민에게 상시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군은 더 많은 주민이 부담 없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관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피클볼 종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시작했다.

테니스와 배드민턴, 탁구의 장점을 결합한 피클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지만, 전용 라켓(패들)과 공 등 별도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군은 해당 장비를 현장에서 전면 무상으로 대여해, 사전 준비가 없이도 체육관만 방문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맘을 풀리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용 요금은 일반인 기준 1회(2시간) 1천200

원이며, 20인 이상 단체는 1인당 1천원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돼 개인은 물론 지역 동호회와 직장인 단체 활동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7시부터 9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2시간 단위로 진행된다. 단 사전 예약은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이행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은 "하니움 실내체육관이 대규모 행사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 속 활력소가 되는 생활체육 거점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고흥군은 최근 거금도농협, 유통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금도농협에서 고흥산 햅앙파의 '오아시스 전국 매장 첫 출하 상차식'을 가졌다. <고흥군 제공>

고흥 거금도 햅앙파, 전국 식탁에 오른다

식품 유통 매장 '오아시스' 협업

고흥 거금도에서 생산된 햅앙파가 친환경 프리미엄 식품 유통 매장인 '오아시스(OASIS)'를 통해 전국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른다.

10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거금도농협에서 고흥산 햅앙파의 '오아시스 전국 매장 첫 출하 상차식'을 가졌다.

행사는 고흥군과 거금도농협, 유통 관계자 등이 참석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기원했다.

이번 전국 매장 공급은 고흥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고흥몰'과 민간 유통기업 오아시스의 상생 협업을 통해 성사됐다.

거금도 햅앙파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돼 아삭한 식감과 단맛이 뛰어나

며, 저장성이 좋아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고흥의 대표 농특산물이다.

군은 이번 프리미엄 유통망 확보가 지역 농산물의 판로 다변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농가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거금도 햅앙파가 프리미엄 유통 채널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통 협력을 통해 고흥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혁 기자

광양경제청, 세풍산단 RE100 첨단 클러스터 구축

133만㎡ 규모 공영개발 전환

3천813억 투입 2030년 준공

생산 유발효과 4천억원 기대

광양경제청이 세풍일반산업단지 기반 시설 조성 공사에 본격 돌입하며 남해안권 첨단 전략 산업 거점 구축에 나섰다.

10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광양시 광양을 세풍리 일원에서 유관 기관 관계자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풍산단 착공식을 개최했다. <사진>

세풍산단 조성사업은 도로·용수·배수시설 등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광양만권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다.

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산단 조성은 완료돼 80여개 기업이 입주할 경우 4천3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천88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2천888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축된 광양경제청장은 "세풍산단 조성은 준비를 넘어 실행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략 산업이 집적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확실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세풍산단 착공식. <광양=양홍렬 기자



장흥군 이동식 '페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어업인 폐기물처리 부담 경감 기대

장흥군은 10일 '해양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페스티로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페스티로폼 감용기(사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안가에 발생하는 페스티로폼은 해양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어업용 부표와 포장재 등에서 발생한 페스티로폼은 부피가 크고 운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이번에 도입된 감용기는 페스티로폼에 열과 압력을 가해 부피를 약 95% 이상 줄일 수 있어 보관과 운반 효율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고체 덩어리인 인고트는 재활용 업체를 거쳐 건축자재 등 다양한 재생 제품의 원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동식 감용기 운영으로 해안가 경관 개선은 물론 어업인들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해 청정 장흥 해역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군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깨끗한 연안 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장흥=노형욱 기자

보성군, 전세대에 '마을방송 수신기' 설치

기후 재난 시 신속 대응 체계 강화

보성군이 가정용 마을방송 수신기 보급 사업을 통해 주민 소통 강화와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10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24년부터 2년간 1만2천여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마을방송 수신기를 보급했다.

이를 통해 방송이 잘 되는 현대식 주택 구조와 난청 지역도 집 안에서 선명하게 행정 소식을 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해당 수신기는 외출 후에도 녹음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특히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심야 재난 상황 발생 시 명확한 상황 전파가 가능해 신속한 대

피와 대응을 돕는다.

실제 군이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3천848명 중 95%가 수신기 설치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깨끗한 방송 청취(81.5%), 농진 방송 재청취 가능(53%), 시계 등 편의성(52.1%) 등이 꼽혔다.

현재 보성군의 수신기 설치율은 71.2%를 기록 중이며, 올해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 잠정철 이전에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가정용 수신기 보급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여수고용노동지청, 조선업 사업장 점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10일 "전날 여수시 돌산읍 소재 조선업 사업장을 방문해 고위험 작업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동종 업계의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크레인 등 중량물 취급과 절단·용접 화기 작업이 잦은 현장의 사고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결과 위험물 주변 화기 작업, 그라인더 방호장치 미부착 등 안전 조치 위반 사항이 확인돼 현장에서 즉각적인 개선을 지시

했다. 특히 저숙련 및 외국인 노동자 증가 추세에 맞춰, 의사소통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맞춤형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조선업은 사소한 실수가 대형 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장비 점검과 안전거리 확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지속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